

[순모임 교재]

물동이를 버린 여인

Leaving Water Jars for Everlasting Streams

(요한복음 4:27-42)

예수님을 전하는 생명나눔은 부담스런 사명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솔직하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의 고백은 소박했지만, 그 고백이 낳은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 결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강물이 흐르게 한 일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잔잔한 생명나눔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1.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생명나눔은 어떤 것인지 하나씩 나누어 보십시오.
2.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8-29절)
여인의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기까지 그녀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그녀가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 내려 놓아야 할 물동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 여인의 고백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0, 39, 42절) 여인의 진솔한 고백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지닌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 잘 보여줍니다. 나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나로 인하여 누군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거나 현재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4.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매일 살아가는 이유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생명나눔이 매일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처럼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생명나눔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생명살림을 하실 것입니다.